

# 한국 비구니 활동 한눈에 본다

한국비구니연구소, '...명감' '수행담록' '...자료집' 등 발간...11일 기념회

중앙승가대 한국비구니연구소(소장 분각)가 5월 11일 오후 1시 승가대 강의동 1층계단 강의실에서 <한국비구니 명감> <한국비구니 수행담록> <한국 고·중세 불교여성·비구니자료집(정사류)> <신문기사로 본 한국비구니 자료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한국비구니 명감> 1권, <한국비구니 수행담록> 3권, <한국 고·중세 불교여성·비구니자료집(정사류)> 1권, <신문기사로 본 한국비구니 자료집> 제7, 8권(2001~2006년) 등은 규모나 전통의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독특한 위치에 있는 한국비구니승가의 활동을 알릴 자료집이다.

한국비구니연구소는 교단 내외적으로 청정성과 수행성을 인정받으며 구법과 포교에 중단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온 한국비구니승가의 활동자료를 정리해 총서로 발간하게 됐다. 특히 <한국비구니 수행담록>의 자료정리에는 7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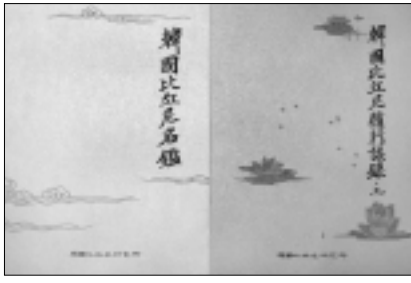
<한국비구니 명감>은 근·현

대에 활약한 비구니 570명에 대한 연대기적 자료정리이고, <한국비구니 수행담록> <한국 고·중세 불교여성·비구니자료집(정사류)> <전3권>은 327명 비구니스님의 일생 행적을 좀 더 자세히 기록 정리한 것이다.

<한국 고·중세 불교여성·비구니 자료집> 1권 정사류 편은 우리의 고대 역사서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서 비구니 관련 자료를 가려 뽑은 것이다.

<신문기사로 본 한국비구니 자료집> 제7, 8권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교계신문에 보도된 비구니스님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한국비구니연구소 소장 분각 스님은 "홀어져 없어지기 쉬운 자료들을 모아서 한국비구니의 발자취를 역사서로 정리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한 것"이라며 "자료정리에 7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



한국비구니연구소가 발간한 <한국비구니 명감>과 <한국비구니 수행담록>.

고 부족한 대로 책을 발간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비구니연구소는 2003년 <신문기사로 본 한국 근현대 비구니자료집> 전 6권과 비구니관련 연구논문 및 교양논문을 모아 <비구니와 여성불교> 전 6권을 발간한 바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TIP** 한국비구니연구소는 한국비구니승가의 발자취를 기록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대원암에 거주하던 97학번 비구니 학인스님 중심으로 설립됐다.

## 현대불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4월 1일부터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기록용 및 소장용, 개인 다큐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등.

**담당자** 김복환 (前 KBS/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02-2004-8279

## 총무원장 장학생 선발

조계종 포교원이 인재육성 일환으로 2007년도 총무원장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한다.

장학금은 동국대 재학생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씩 지급된다. 6월까지 포교원(02-2011-1891)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 염불 제대로 하려면...

조계종 불학연구소 '염불 수행입문' 발간

한국불교 역사상 선(禪)과 함께 가장 많이 실천해온 수행법 중 하나가 염불이다. 염불은 사찰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행하는 의례이자 한국 불자들의 대표적 신앙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불교 중심의 한국 불교 풍토에서 염불은 하급기 중생들의 타락 신앙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수행 초심자를 대상으로 한 <염불 수행 입문>(사진)을 발간했다. <간화선 입문>과 <절 수행 입문>에 이은 '불교 수행 입문' 시

리즈 세 번째 책이다. 이 책은 예배, 참회, 발원으로 이어지는 염불 수행 의식과 실제로 염불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행하게 될 절차를 중심으로 염불할 때의 주의사항, 염불 수행자의 마음가짐 등 염불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침을 담았다.

또한 여러 종류의 염불 방법과 염불의 역사, 경전 근거 등을 정리해 기준과 방법이 혼재돼 있는 염불 수행법을 종단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입문서다.

## "한국불교 중흥시킨 선사들 '성자'로 추대하자"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종단협에 제의

"한국불교 역대 대선사를 엄선해 성자(성인), 특신통대보살, 아라한으로 추대하자."

(사)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무공, 태고종 중앙포교원장)은 4월 27일 서울 무량사에서 인원총회를 개최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이와 같이 건의했다.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은 제안서에서 "한국불교 1700년사를 살펴볼 때 실로 대오견성하신 대승의 특신통대보살과 대선사가 많이 배출됐다"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성자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불교를 중흥 발전시킨 역대 대선사 10~16분을 선정해 성자(聖者)로 추대하고

예배, 공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서에서 또 "현존 한국불교사에는 원효, 의상, 도의, 원측, 자장, 의천, 지눌, 태고, 무학, 휴정, 유정 등 기라성 같은 특신통대보살과 대선사가 존재하고 있다"며 "심지어 중국불교에서 한국스님인 지장 법사를 육신보살로, 무상 대선사를 500나한 중 한 분으로 추대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성자추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륜불교문화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불교 승가에서는 조석예불시,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들에게 예배

## "관음사 주지 진명 스님 선출 '무효'"

조계종 중선위 결정...제주불자연합 '희생 강요'

진명 스님을 제주 관음사 교구 주지후보로 선출한 산중총회에 대해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광)는 5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76차 회의를 열고 "제23교구 관음사에서 4월 20일 산중총회를 시행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관음사 교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지 및 재선거 결정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산중총회를 강행해 진명 스님을 관음사 주지 후보자로 선출했다.

중앙선거위는 또 관음사 주지직 무대행인 시공 스님과 협조해서 주지직무대행 기간 내 산중총회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공문을 관음사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교구 선거관리위원 전원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관음사 교구는 4월 27일 광제사 대웅전에서 교구총회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 산중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주지 임명이 보류된 법화사, 월라사 등 2개 사찰과 반려린 6개 사찰 주지를 품신하기로 결정했다.

관음사 문제와 관련 동산문도회는 5월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금의 사태는 오랫동안 관음사를 기반으로 제주불교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었던 회주를 비롯한 소수 소임자 스님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중흥총회에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중단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불교 교관수호와 청정승가 의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은 4월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산중총회에서 추천한 진명 스님을 관음사 주지로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관음사의 교관을 유린하며 일방적인 회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사찰 사용 국유지 얼마나?**  
**조계종 재무부 조사 실시**

조계종 재무부는 사찰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현황과 사찰 토지를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사찰은 소재지, 지목, 면적, 대부료, 대부기간, 토지의 관할부처 등을 기업에 5월 31일까지 재무부(02-2011-1750)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재무부는 사찰 재산 임대 현황과 사찰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현황 및 납부 현황을 5월 31일까지 조사한다.

남동우 기자

공양하고 있다"며 "인도와 중국 불교에서는 이처럼 많은 성인을 배불했는데 한국 불교 1700년사에서 한 분의 성인도, 대승의 특신통대보살도, 아라한도 배출하지 못한 것은 민족적 주체성과 자존심을 포기한 사대주의 망상에 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륜불교문화원 이사장 무공 스님은 "일단 한국불교의 중심적 종단인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종단들이 나서 자체적인 추대절차를 거친 뒤 불교학자들에게 의뢰해 한국 불교사상 크게 깨달아 깨친 성자로서 한국불교를 중흥 발전시켜 주신 10~16분의 대선사를 엄선해 성자로 추대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 알림

본지에 연재하기로 했던 '팔만 대장경강설대법회'가 합천 해인사의 내부사정으로 취소됐음을 알립니다.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재철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8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새싹불자를 키움시다' 캠페인, 종립학교 학급에 '현대불교 보내기'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홍파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50만원
- 무공 스님 (태고종 중앙포교원장) 20만원
- 성운 스님 (서울 삼천사 주지) 매월 10만원
- 대현 스님 (서울 보광사 선원장) 30만원
- 철안 스님 (남양주 봉선사 주지) 매월 20만원
- 원담 스님 (서울 조계사 주지) 매월 20만원
- 법만 스님 (고창 선운사 주지) 매월 10만원
- 웅산 스님 (예산 수덕사 주지) 10만원
- 진효 스님 (강화 정주사 주지) 매월 10만원
- 성원 스님 (강화 선원사 주지) 10만원
- 홍승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30만원
- 무량회 30만원
- 익명의 불자 100만원
- 이정섭 2000원

## 한암대중사 탄신 제132주기 추모 행사 봉행

귀의삼보 하옵고, 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대중사의 탄신 제132주기를 맞이하여, 삼학균수 및 승가오칙(선, 염불, 간경, 의식, 수호가람)의 수행법을 널리 퍼신 한암대중사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한암대중사 수행학림과 추모다례제, 판소리 '한암가' 공연, 한암선사상 학술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선근인연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 ■ 한암대중사 수행학림

- 일 시 : 5. 11.(금) - 13.(일) • 장 소 : 월정사, 상원사, 중대사자암, 적멸보궁
- 수행일정 : 좌선, 니를 닦는 108배, 삼보일배, 참법 및 포살, 포행, 강의 등

### ■ 한암대중사 탄신 제132주기 추모 행사

- 일 시 : 5. 13.(일) 09:00 - 17:00 • 장 소 : 월정사 적광전 및 대법루전
- 행사내용
  - 한암대중사 탄신 제131주기 추모다례제 : 10:00 - 11:30
  - 판소리 '한암가' 공연 : 12:30 - 13:30
  - 제2차 '한암사상연구' 학술세미나 : 13:30 - 17:00
- 1. 禪宗史 지평에서 본 方漢岩禪師
  - 발표자 : 신구택 교수(연세대 철학과 교수) • 논평자 :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 2. 한암의 一鉢禪 : 巖(巖)과 巧(巧)의 마찰과 운환
  - 발표자 : 고영선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논평자 : 박재현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 3. 漢岩禪師 參禪曲의 문학적 특성과 문화사적 意義
  - 발표자 : 김종진 교수(동국대 국문과) • 논평자 : 배규범 교수(경희대 국문과)
- 4. 漢岩의 書簡文 考察
  - 발표자 : 윤창화(민족사 대표) • 논평자 : 김영욱(가산불교연구원 상임 연구원)

불기 2551('07)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성지 월정사 회 주 지 연 뒤 안 후 현 해 합장

## 한암문도회 제36차 정기총회

귀의삼보 하옵고, 문수성지 오대산 한암문도회 제36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문도스님께서는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2007년 5월 13일(음력 3월 27일) 12:00

###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성지 월정사 동법당

- 안 건 : 1) 한암·탄허대중사 선양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 2) 한암·탄허대중사 선양사업 추진의 건
- 3) 기타 안건

### ■ 연락처 : 033)332-6661~5

※ 한암문도회 운영위원회는 5월 13일 오전 9시부터 개최하오니 운영위원 스님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1('07)년 5월 1일

한암문도회 대 언 영 위 원 장 표 언 암 현 해 합장